

- 1) 한양대학교 의료원 구리병원 의무기록과 2)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3) 한양대학교 의료원 서울병원 광화일실 4) 한양대학교 보건의료연구소

목적: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은 1985년 Mube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되어 현재 담낭결석 치료의 중요한 방법으로 시술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0년 첫 시술이후 입원기간의 감소, 미용상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개복 담낭절제술을 대체하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용에 있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그 선택에 있어서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본 연구는 복강경 담낭절제술과 개복 담낭절제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재원기간과 수술 재료 및 모든 비용 등을 비교 분석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시술선택에 도움을 주고 향후 의료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방법: 2003년 1월부터 12월까지 G병원에서 복강경 담낭절제술(120건)과 개복 담낭절제술(19건)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입원기록 및 병원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자료를 취합한 후 비교분석하였다. 의무기록지와 전산자료에서 성, 연령, 신장, 체중, 과거수술여부, 음주, 흡연, 진단명, 재원기간, 수술시간, 마취시간을 조사하였으며 퇴원진료비 계산서를 통하여 마취비용, 항생제 비용, 진통제 비용 및 총 약제사용료와 병실사용료 등 총진료비를 조사하였다. 또한 복강경 담낭절제술 환자들에게 이용되는 일회용 기구들을 조사하여 사용빈도를 구하였고 t-test를 통하여 두 그룹간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결과: 복강경 담낭절제술환자의 평균연령은 52.9(±15.03)세로 수술후 평균재원일은 4.06(±2.57)일, 평균수술시간은 69.7(±29.22)분, 평균마취시간은 96.7(±32.98)분이었으며 개복 담낭절제술환자의 평균연령은 62.4(±14.76)세로 수술후 평균재원일은 15.8(±7.41)일, 평균 수술시간은 140.5(±50.19)분, 평균 마취시간은 185.8(±70.61)분 이었다. 개복 담낭절제술에 비하여 복강경 담낭절제술의 경우 11.7일의 평균재원일수의 감소, 70.8분의 수술시간의 감소, 89분의 마취시간의 감소 및 675,102원의 약제사용료의 감소가 있었다.

결론: 그동안 복강경 담낭절제술의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는 첨단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인한 비용과 값비싼 수술비를 단점으로 지적해 왔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수술자체의 비용보다는 수술후 재원기간의 증가로 인한 입원비와 항생제 등 추가약물비용의 증가로 전체적인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어 복강경 담낭절제술이 개복 담낭절제술보다 비용측면에서 비교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사회복귀로의 시간도 짧아 사회경제적 비용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 의료보험제도하에서는 복강경에 대한 일부비용이 계산되지 않고 있으며 외국기 자체의 의존도가 높아 이에 대한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kshpa-11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우리나라 의사의 인식과 대응

A study on the Physician's Perception and Attitude to the Health Care Market Liberalization

함윤희¹⁾, 한동운^{2),3)}, 윤태형³⁾

1)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의료행정학과 2)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3) 한양대학교 보건의료연구소

목적: 21세기 들어 세계 각국은 "세계화(Globalisation)"라는 가치를 내걸고 "시장개방확대"와 "서

비교역 자유화"라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서비스부문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 없다. 이에 최근 우리나라도 국가간 시장개방협상을 진행하면서 각국별 양허안에서 의료분야는 제외하였으나, 2006년 말까지 DDA 협상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어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관심과 전략수립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가 시급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교수, 시민단체 및 진료지원부서를 대상으로 그 범위가 한정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의사군에 있어서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사를 대상으로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국가정책전략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방법: 전국 소재 대학병원 25개소, 종합병원 10개소, 병원 15개소, 의원 800개소, 서울·경기소재 500병상 이상의 특수법인을 포함한 국립병원 5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를 대상으로 2005년 3월 28일부터 동년 4월 16일까지 약 3주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3,134부의 설문지를 우편과 인편으로 배부하였고 854부를 회수하였으며 이중 응답 내용이 미흡한 24부를 제외하여 최종 분석된 설문지는 830부로 26.5%의 회수율을 보였다.

결과: 조사대상자의 50.0%에서 의료시장 개방에 관심이 있었으며, 의료시장의 전면적 개방에 대하여는 반대의 의견이 40.2%로 36.0%를 기록한 찬성의 의견보다 높았다. 특히 개방에 관심 있는 군은 40대 연령, 공동 개원의원 및 병원, 전문의, 봉직의, 의사면허기간 10년 이상의 군으로 전면적 시장개방에 대한 찬성도가 높았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진출에 대하여 45.9%가 찬성하였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는 55.9%가 찬성하였다. 외국면허제도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불인정'이 58.4%로 '인정'의 20.8%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의료시장 개방에 대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다양화'를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고급의료에 대한 선호도 심화'를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의료계가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병·의원의 특화·전문화'를,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는 '의료수가의 현실화'를 들었다.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하여 70.6%가 찬성을 하였으며, 향후 병·의원의 경영환경에 대하여 75.2%가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의료시장의 전면적 개방에 대하여 반대의견(40.2%)이 찬성의견(30.6%)보다 많아 기존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부정적인 시각이 높았다. 의료시장 개방은 국내 의료산업이 직면한 큰 환경변화로 의료공급자들에게는 위기의 측면이 부각될 수 있으나 전지구적이고 시대적인 흐름과 소비자 위주의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치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kshpa-12

노인요양시설의 규모 및 범위의 경제

김동환¹⁾, 이태진¹⁾

1)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배경: 고령화와 함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크지만, 요양시설의 비용 및 적정규모에 관한 정보 등이 부족하다.

목적: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경제학적 개념인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가 존재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실증자료를 통해 시설의 규모나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